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28.(목) 06:00 < 3.28.(목) 석간 > 배포 2024. 3. 27.(수)

글로벌 바이오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 추진

-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 투자 유치 성공에 이어 네 번째 추진
- 써모 피셔 사(社) 아태 지역 총괄 부회장과 투자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28.(목)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 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Thermo Fisher Scientific : 매출 47조 원 이상의 미국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60여 개국 12만여 명의 직원 고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기업에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또한 써모 피셔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현금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써모 피셔 측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여 배터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분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0억 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IR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서기관	지민정	(044-203-40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써모 피셔 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3. 28(목) 11:00~12:00 (60’)

○ **장 소** :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수서 오피스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2 수서오피스 빌딩 11, 12층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장
- **(써모 피셔)** 마크 스메들리 부회장 (아태·남미지역 총괄)

○ **주요 내용** :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방안
배터리·반도체 분야 협력방안

□ 세부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11:00 ~ 11:20	20’	• **고객경험센터 투어**
11:20 ~ 12:00	40’	• **간담회**
11:20 ~ 11:23	3’	- 모두발언
11:23 ~ 11:35	12’	- 회사 개요 및 한국 사업 현황 브리핑
11:35~11:55	20’	- 향후 투자 협력방안 논의
11:55~12:00	5’	- 마무리발언